(재)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 58 (2026. 4.), 104-135
ISSN 1226-5926 (print), ISSN 2586-2480 (online)
DOI: https://doi.org/10.28977/jbtr.2026.4.58.104
https://dbpiaone.com/bskorea/index.do

JBTR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다니엘 1:8의 גָּאַל 재해석

— *BDB*/*HALOT* 동음이의어 분류에 대한 의미론적 비판 —

김정훈*

1. 서론

1.1. 문제 제기: 부정한 음식인가, 아니면 무너진 정체성인가? — 다니엘은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지켰는가?

다니엘 1:8은 전통적으로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였다"는 구절로 해석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문은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 준수나 개인적 경건의 모범으로 설명되었으며, 히브리어 동사 יִתְגָּאַל은 제의적 오염(defilement)을 뜻하는 동사로 이해되어 왔다.[1] 이러한 해석의 배경에는 *BDB*와 *HALOT*이 גָּאַל 어근을 "구속하다"(I)와 "더럽히다"(II)라는 상호 무관한 동음이의어로 분리함으로써,[2] 다니엘 1:8의 해석 지평을 선험적으로 제의적 범주에 고정해 온 사전학적 분류 체계가 작동한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 문헌은 다른 증거를 제시한다. 느헤미야 7:64의 וַיִּנָּאֲלוּ מִן־הַכְּהֻנָּה(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는 גָּאַל

* 현재 아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신약신학 박사과정. pmaker21@naver.com.

1) J. J. Collins, *Daniel*,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1993), 141-143; J. A. Montgomer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Daniel*,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27), 130-131.

2) F. Brown, S. R. Driver, and C. A. Briggs, *The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Oxford: Clarendon Press, 1977), 145 (גָּאַל I), 146 (גָּאַל II); L. Koehler and W.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M. E. J. Richardson, trans., vol. 1 (Leiden: Brill, 2001), 169-170.

이 제의적 상태를 기술하는 동사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직분과 소속이 박탈되었음을 판정하는 지위 판정 언어로 기능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여 준다. 말라기 1:7, 12 역시 동일 어근이 제사장 직무 훼손을 고발하는 문맥에서 사용됨으로써, 이 동사가 '정결/부정'의 문제를 넘어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지위 전락(decline of status) 혹은 공동체적 제명(excommunication)을 지시하는 의미 영역에 속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용례들은 גָּאַל 어근이 '회복'과 '상실'이라는 상반된 방향성을 포괄하는 의미론적 연속성 안에서 기능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제국이 제공하는 음식을 수용하는 행위가 바벨론 통치 질서에 대한 전인격적 귀속을 상징하며, 제국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동화에 대한 한계선(limit to assimilation)을 설정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3] 다니엘 1:8의 결단은 단순한 음식 규율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 구성원으로의 지위를 상실당하지 않기 위한 선제적 자기 위치 설정 행위로 읽힐 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גָּאַל 어근의 의미장을 '언약적 지위의 변동'이라는 범주로 이해할 가능성이 실제 본문과 용례 분석에 의해 지지되는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의미론적 접근이 다니엘 1:8 해석에 제공하는 해석학적 함의를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을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정경적 수용 과정 속에서 형성된 의미 기능을 검토하는 의미론적 연구이다. גָּאַל을 '언약 공동체 내 지위의 변동'으로 재구성하는 제안은 포로 후기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의미 패턴을 설명하기 위한 해석학적 가설로 제시된다.

1.2. 문제의 핵심: 동음이의어 분리가 본문 의미를 선 결정한다.

다니엘 1:8이 제의적 정결 문제로 고착되어 온 핵심 배경에는, 히브리어 גָּאַל 어근을 상호 무관한 두 의미 — "구속하다"(I)와 "더럽히다"(II) — 로 분리해 온 사전학적 관행이 자리하고 있다. 이 분리는 어휘 기술을 넘어, 다니엘 1:8을 레위기적 정결 담화의 하위 범주로 미리 결정해 버리는(pre-determining) 해석학적 결과를 초래했다. 본 논문은 동음이의어를 구분

3)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 행위는 단순히 개별적인 식생활 규례 준수를 넘어, 제국 질서로의 완전한 편입을 거부하는 상징적 결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콜린스(J. J. Collins)는 다니엘 일행이 바벨론의 교육과 이름 변경은 수용하면서도 음식 섭취에서 선을 그은 것이 제국 문화로의 "동화에 대한 한계선(limit to assimilation)"을 설정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그는 외경 토비트 1:10-11와 유딧 12:1-4 등의 사례를 들어, 이방인의 음식을 먹는 행위가 유대 공동체 내에서 신앙적 배절(offense)이자 정체성 상실의 징표로 여겨졌음을 지적한다. J. J. Collins, *Daniel*,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142-143 참조.

하는 작업을 연구의 전제로 삼기보다, 포로 후기 문헌(느 7:64; 스 2:62; 말 1:7, 12)에서 확인되는 실제 용례의 의미 작동을 통해, 해당 분류가 특정 문맥군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גָּאַל의 "더럽히다" 의미를 포로 후기 문맥에서 이 어근이 활성화하는 의미 층위(자격·직분·소속의 박탈/훼손)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전적 기술의 재배치 가능성을 제안한다.

1.3. 연구 질문

다니엘 1:8에 사용된 히트파엘 동사 יִתְגָּאַל은 *BDB*와 *HALOT*이 분류한 바와 같이 '제의적 오염'을 뜻하는 독립된 동음이의어(גָּאַל II)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 혹은 다른 의미 가능성을 제시하는가. 본 논문은 이 질문을 중심으로, 다니엘 1:8의 יִתְגָּאַל을 둘러싼 사전적·해석학적 전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한다.

1.4. 논제 선언

본 논문은 의미 기능이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핵심 문맥군(느 7:64; 스 2:62; 말 1:7, 12)을 우선 분석 대상으로 삼아, *BDB*와 *HALOT*이 גָּאַל II를 "defile"이라는 독립 항목으로 분리해 온 분류가 실제 용례의 의미 작동을 충분히 설명하는지 검토한다. 특히 וַיְנַאֲלוּ מִן־הַכְּהֻנָּה(느 7:64)와 מְגֹאָל(말 1:7, 12)은 제의적 오염 상태 자체의 기술이라기보다, 제사장직의 무자격 선고와 직분 훼손의 결과를 가리키는 사회-법정적 판정/귀결 층위를 전면화한다. 이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다니엘 1:8의 יִתְגָּאַל을 '제의적 오염 회피'로 단선화하기보다, '제국 질서로의 동화가 초래할 수 있는 언약적 소속/지위의 훼손을 거부하는 결단'으로 읽을 해석학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1.5. 연구 방법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용례 기반 의미론 분석: גָּאַל 어근의 주요 용례를 의미론적으로 검토하여, 동일 형태가 어떤 담화·제도적 맥락에서 어떠한 의미 영역을 활성화하는지 분석한다.

둘째, 핵심 반례 본문 주해: 느헤미야 7:64와 에스라 2:62의 문맥을 검토

하여, 해당 본문에서 גָּאַל이 '제의적 오염' 자체가 아니라 제사장직에서의 배제/지위 박탈을 지시함을 입증한다.

셋째, 사전학 분류 비판 및 재번역 제안: 위 용례 분석을 토대로 *BDB*와 *HALOT*의 동음이의어 분류 체계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다니엘 1:8의 יִתְגָּאַל에 대한 재해석·재번역 가능성을 제시한다.

연구 과정에서 본 논문의 논지 구조화, גָּאַל 어근 용례 배열의 초안 정리, 일부 번역 초안 정리에 한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제한적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OpenAI사의 ChatGPT(5, 2025. 8. 7.)를 어휘군 배열 및 논지 도식화 보조 도구로, Dicta's Nakdan(2024)을 히브리어 자동 모음 첨가 도구로 사용하였다. 다만 모든 AI 생성 결과는 BHS 및 BHQ 본문, 그리고 *BDB*, *HALOT* 등 주요 사전과 대조하여 저자가 직접 검증·수정하였으며, 본 논문의 해석과 결론에 대한 학문적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다.[4]

2. *BDB*/*HALOT*의 גָּאַל 동음이의어 분류와 그 문제점

2.1. גָּאַל의 정경적 기원: 레위기 25장의 법정적 고엘 제도

גָּאַל 어근의 법정적·관계적 성격은 이미 레위기 25장의 '기업 무름(redeeming kinship property)' 제도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성서 히브리어에서 고엘(גֹּאֵל)은 가난이나 파산으로 인해 토지와 사회적 기반을 상실한 친족을 공동체의 질서 안으로 복귀시키는 법적 행위자이다.

밀그롬(J. Milgrom)은 레위기 25장의 고엘 제도가 가문의 연속성과 토지 보유권(אֲחֻזָּה)의 유지를 통해 공동체적 질서를 보존하는 장치임을 강조한다.[5] 이때 גָּאַל은 대상의 제의적 정결 여부를 기술하는 동사가 아니라, 공동체 내 소속과 기업의 회복을 수행하는 제도적·법정적 동사로 기능한다. 이러한 원형적 의미는 포로기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의 구속자(גֹּאֵל יִשְׂרָאֵל)"라는 신학적 호칭으로 확장된다(사 41:14; 43:1, 14). 여기서 여호와를 '고엘'로 부르는 표현은 레위기 25장의 친족 구속 제도의 법정적 틀을 신학적으

4) OpenAI, ChatGPT (5, 2025. 8. 7.), [대형언어모델(LLM)], https://chatgpt.com/ (2026. 1. 16.); Dicta's Nakdan (2024), [히브리어 자동 모음 첨가], https://nakdan.dicta.org.il/ (2026. 1. 16.). 본 논문의 논지 구조화, גָּאַל 어근 용례 배열 초안 정리, 일부 번역 초안 작성, 히브리어 자동 모음 첨가에 한하여 활용하였으며, 모든 결과는 저자가 BHS·BHQ 및 *BDB*·*HALOT*과 대조하여 검증·수정하였다.

5) J. Milgrom, *Leviticus 23-27*, Anchor Bible 3B (New York: Doubleday, 2001), 2185-2189.

로 전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바벨론 포로라는 공동체적 상실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고엘로 선언되신다는 것은, 잃어버린 기업과 소속을 회복시키는 법정적·관계적 행위에 대한 신학적 재맥락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개는 גָּאַל 어근이 단순한 제의적 상태 기술을 넘어 공동체적 소속과 지위의 변동을 표지하는 의미 축과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포로 후기 문헌에서 나타나는 גָּאַל의 용례 또한 물리적 오염 개념으로 환원되기보다, 지위의 회복과 상실이라는 법정적 범주 안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느헤미야 7:64와 에스라 2:62의 용례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2.2. 범위 확정: 다니엘 1:8의 표제어는 גָּאַל이다

본 장은 *BDB*와 *HALOT* 등 주요 히브리어 사전들이 제시해 온 גָּאַל 어근의 동음이의어 분류 방식을 재검토한다. 기존 사전 체계는 다니엘 1:8의 יִתְגָּאַל을 '구속하다'(I)와 구별되는 '제의적 오염'(II) 항목 아래 배치함으로써, 해당 용례를 주로 레위기적 정결 담화의 범주 안에서 이해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류 방식이 본문 문맥과 용례 분포에 비추어 충분히 정당화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구약성서 전체에서 גָּאַל(II)로 분류된 11번의 용례들을 전수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이 어근이 단순히 분절된 '제의적 더럽힘'만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 내에서의 '지위 회복과 상실'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 연속성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표 1> 구약성서에 나타난 גָּאַל(II)의 용례와 의미 구조 분석

본문 용례	문맥적 배경	전통적 해석 (제의적 층위)	본고의 제안 (사회·법정적 층위)
스 2:62; 느 7:64	계보 확인 실패 및 명부 누락	제의적 불결에 따른 직무 배제	행정적·법정적 실격으로 인한 제사장 지위 박탈
사 59:3	손과 손가락에 피와 죄악이 묻음	살인 등으로 인한 도덕적/의식적 부정	언약 공동체 내에서의 공적 신용 및 자격 상실
사 63:3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 옷이 젖음	심판의 가시적 결과(피 흘림)	심판에 의한 언약적 정체성의 강제적 훼손

본문 용례	문맥적 배경	전통적 해석 (제의적 층위)	본고의 제안 (사회·법정적 층위)
애 4:14	맹인들이 거리에서 피에 더러워짐	신체 접촉에 의한 전염적 부정	공동체 붕괴로 인한 정상적 사회 지위의 상실
단 1:8	왕의 음식과 포도주 거부	금지된 음식 섭취에 따른 부정	제국 질서(Imperial Order)에 의한 지위 귀속 거부
습 3:1	패역하고 더러운 성읍(예루살렘)	종교적 부패와 오염	공적 공의의 파괴로 인한 성읍의 통치적 권위 실추
말 1:7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림	제물의 물리적/의식적 결함	제사장 언약 파기에 따른 직무의 법정적 가치 하락
말 1:12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힘	제사 절차의 불경함	공적 예배 질서 내에서 제사장적 지위의 부정

위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적인 해석학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의미 층위의 일관성(Consistency) 발견이다. 전통적인 사전학적 분류는 이 단어를 단순히 '물리적/제의적 더럽힘'으로 정의해 왔으나, 실제 용례들을 전수 조사해 보면 모든 문맥에서 공통적으로 '언약 공동체 내에서의 지위 변화'가 수반됨을 알 수 있다. 특히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족보 확인 실패 문맥은 גָּאַל이 신체적 오염 상태가 아니라, 명부 누락이라는 행정적 결함에 따른 '공식적 지위 박탈'을 선언하는 법정적 언어로 사용되었음을 확증한다.

둘째, 제의적 층위와 사회·법정적 층위의 통합적 이해이다. 말라기 1장의 사례에서 보듯, 제물의 오염은 단순한 물질의 불결을 넘어 제사장 직무의 태만과 언약 질서의 훼손이라는 법정적 고발(Covenant Lawsuit)의 성격을 띤다. 이는 גָּאַל이 가리키는 의미의 본질이 '더러워진 상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초래된 '언약적 관계의 파괴와 자격 상실'에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다니엘 1:8 해석의 재구축이다. 이러한 전수 조사의 결과는 다니엘 1:8의 יִתְגָּאַל 역시 레위기적 정결 규례의 범주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이사야나 예레미야애가에서 גָּאַל이 사회적·종교적 자격의 훼손을 의미하듯, 다니엘의 결단은 제국이 제공하는 음식을 통해 바벨론의 통치 질서에 귀속됨으로써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지위'를 상실당하지 않으려는 선제적 방어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더 적절하다.

결국, גָּאַל 어근을 상호 무관한 두 개의 동음이의어로 분리해 온 사전학적 관행은 본문이 활성화하고 있는 '지위의 상실과 유지'라는 단일한 의미장(Semantic Field)을 포착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로 작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2.3. 사전 분류 개관

히브리어 동사 גָּאַל은 전통적으로 두 개의 독립된 동음이의어로 분류되어 왔다. *BDB*는 גָּאַל I을 "redeem, act as kinsman-redeemer"로, גָּאַל II를 "defile, pollute"로 제시하며, *HALOT* 역시 동일한 체계를 유지한다. 이 분류는 다니엘 1:8, 느헤미야 7:64, 에스라 2:62, 말라기 1:7, 12 등에 나타나는 מְגֹאָל /יִתְגָּאַל 등의 형태를 모두 גָּאַל II, 즉 "제의적 더럽힘" 의미군에 귀속시킨다.

이러한 사전 체계는 주석 전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다니엘 1:8의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를 율법적 음식 규례 혹은 제의적 정결 준수의 문제로만 해석하도록 이끌어 왔다. 밀러(S. R. Miller)는 다니엘이 제의적 이유로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고 보며, 하우스(P. R. House) 역시 גָּאַל을 종교적 오염 개념으로 정리한다.[6]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본문 자체의 문맥적 요구라기보다, 사전 분류가 제공한 해석의 틀을 전제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2.4. 분리 기준과 어원적 근거의 한계

*BDB*와 *HALOT*이 גָּאַל을 두 개의 동음이의어로 분리한 주요 근거는, 본문 문맥에 대한 귀납적 검증이라기보다 음운적 유사성과 인접 어근과의 비교에 기반한 어원적 가설에 가깝다. 클라인(E. Klein)이 "더럽히다" 의미의 גָּאַל을 인접 어근 נעל에서 파생된 이차적 형태로 설명하는 것 역시 이러한 경향을 대표한다.[7] 그러나 어원적 개연성은 곧바로 본문 의미의 규정으로 환원될 수 없다. 특히 포로 후기 문맥군에서 גָּאַל이 반복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음식 규례나 제의 절차 자체라기보다, 공동체 제도 안에서의 자격 승인과 박탈, 직분의 정당성, 그리고 소속 경계의 유지/침해라는 관계적·법정적 층위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동음이의어 분리를 선결로 받아들이기보다, 포로 후기 용례의 실제 의미 작동에 근거하여 해당 분류가 이 문맥군에

6) S. R. Miller, *Daniel*, vol. 18,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4), 66-68; P. R. House, *Daniel*: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D. G. Firth, ed.,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23 (London: Inter-Varsity Press, 2018), 52-53.

7) E. Klein, "גאל II", B. Sarel, ed., *A Comprehensive Etymological Dictionary of the Hebrew Language for Readers of English* (Jerusalem; Carta: University of Haifa, 1987), 88.

서 얼마나 설명력을 갖는지를 재검증하고자 한다.

2.4.1. 포로 후기 문서의 자기 인식: “구속받은 자들”

포로 후기 문서들은 귀환 공동체가 자신들을 단순한 생존자나 귀환민이 아니라, 여호와에 의해 ‘구속된 자들(גְּאוּלִים)’로 인식했음을 일관되게 증언한다(사 35:9–10; 43:1; 44:22; 52:9; 62:12). 이사야 40-66장은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을 출애굽에 병행되는 새로운 구속 행위로 해석하며, 여기서 ‘구속’은 정치적 해방을 넘어 언약적 소속과 정체성의 회복을 가리킨다.[8]

이러한 자기 인식은 에스라-느헤미야 전승에서 족보와 계보 검증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구체화된다. 귀환자 명단은 단순한 행정 자료가 아니라, 누가 언약 공동체에 합법적으로 속하는지를 규정하는 신학적 경계 장치로 기능한다.[9] 이는 포로 후기 문헌에서 언어 사용이 제의적 상태의 기술을 넘어, 공동체 내 지위와 소속의 승인 혹은 박탈이라는 관계적 범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은 גָּאַל 어근이 후기 문서들에서 ‘제의적 오염’ 개념으로 기능하는지, 혹은 언약 공동체 내 지위 변동을 기술하는 핵심 어휘로 재기능화되었는지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문제는 느헤미야 7:64와 에스라 2:62의 구체적 본문 분석을 통해 더욱 분명히 검증될 수 있다.

2.4.2. 포로 후기 문헌에서의 의미 재배열 가능성

*BDB*와 *HALOT*이 제시하는 גָּאַל 어근의 동음이의어 분리는 주로 음운론적 유사성과 인접 어근과의 어원 비교에 근거한 것이다. 특히 클라인은 “더럽히다”의 의미를 지닌 גָּאַל을 인접 어근 נעל에서 파생된 이차적 형태로 설명하며, 이를 “구속하다”의 גָּאַל과는 기원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어근으로 분류한다.[10] 이러한 접근은 언어사적 개연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서 일정한 학문적 정당성을 지닌다. 그러나 언어사 연구는 동시에 후기 성서 히브리어 단계에서 동일한 자음군이 문맥과 사용에 따라 의미적으로 재배열될 수 있음을 지적해 왔다. 본 논문은 גָּאַל 어근의 의미를 어원적 분리에 의해 선결하기보다, 포로 후기 문헌에서 실제 사용 문맥을 중심으로 의미 작동

8) J. N. Oswalt, *The Book of Isaiah*, Chapters 40-66,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8), 365-374, 590; J. A. Motyer, *Isaiah: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20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9), 431-434, 특히 사 62:12에 관한 부분.

9) J. Blenkinsopp, *Ezra–Nehemiah,*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88), 274-286.

10) E. Klein, *Comprehensive Etymological Dictionary*, 88.

을 검토하는 접근을 취한다. 이러한 접근은 히브리어 언어사 연구 전반에서 제기되어 온 문맥 우선 의미론의 해석학적 가능성과도 부합한다.[11] 이러한 문제의식은 다음 장에서 느헤미야 7:64와 에스라 2:62에 대한 본문 주해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증될 것이다.

2.5. 분류의 신학적·해석학적 결과

이와 같은 동음이의어 분리는 어휘 기술에 그치지 않고, 본문 해석의 방향을 구조적으로 고정시키는 해석학적 효과를 낳는다. 다니엘 1:8이 גָּאַל II("더럽히다")로 분류되는 순간, 이 본문은 바벨론 왕궁이라는 정치적·언약적 맥락으로부터 분리되어 개인의 경건성이나 제의적 정결 규례의 문제로 축소된다. 그 결과, 포로기 이스라엘이 직면한 정체성의 위기, 곧 제국 질서 속에서 언약적 지위를 보존하려는 공동체적 투쟁이라는 본문의 핵심 신학적 질문은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분류는 다니엘 1:8을 신약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적 경건의 표본"으로만 읽도록 유도한다. 그 결과, 음식 규정의 종결 이후에도 본문은 윤리적 모범이나 개인적 절제의 사례로만 소비되며, 성경 전체의 정경적 연속성 속에서 이 본문이 지니는 신학적 의미를 재고할 가능성은 차단된다. 결국 *BDB*와 *HALOT*이 제시한 동음이의어 분류는 사전적 기술의 차원을 넘어, 다니엘 1:8의 의미장을 제의적·윤리적 범주 안에 고정시키는 해석학적 장치로 기능해 왔다.

3. 결정적 반례: 느헤미야 7:64와 에스라 2:62

앞선 장에서는 *BDB*와 *HALOT*이 제시한 גָּאַל 어근의 동음이의어 분류가 어원적 가설에 기초해 형성되었으며, 이 분류가 포로 후기 문헌의 실제 사용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포로 후기 공동체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속받은 공동체'로 이해하며 언어를 통해 소속과 지위의 경계를 규정해 왔다는 점은, גָּאַל의 의미를 제의적 오염에 한정하는 해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

11) 후기 성서 히브리어 연구에서 어원적 분리보다 문맥 기반 의미 분석을 중시하는 접근에 대해서는, A. Sáenz-Badillos, *A History of the Hebrew Languag*e, John Elwolde, tr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112-129; A. Hurvitz, *A Linguistic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estly Source and the Book of Ezekiel: A New Approach to an Old Problem*, CahRB 20 (Paris: Gabalda, 1982), 32-47 참조.

3.1. 히브리어 본문 분석

느헤미야 7:64와 에스라 2:62는 동일한 표현으로 제사장 족보를 입증하지 못한 자들의 처지를 기술한다.[12]

> 느헤미야 7:64 // 에스라 2:62
> אֵלֶּה בִּקְשׁוּ כִתְבָם הַמִּתְיַחְשִׂים וְלֹא נִמְצָאוּ וַיִּגָּאֲלוּ מִן־הַכְּהֻנָּה
> "그들이 족보 문서를 찾았으나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사장직에서 제외되었다."(필자 번역)

해석의 핵심은 וַיִּגָּאֲלוּ מִן־הַכְּהֻנָּה이다. גָּאַל은 전치사 מִן과 결합하여 특정 집단이나 직분으로부터의 공식적 배제를 나타내며, 이는 개인의 제의적 상태를 기술하는 표현이 아니라 공동체가 내린 법적·제도적 판정을 서술하는 동사적 용법이다. 따라서 본문은 '부정해졌다'는 상태 변화를 묘사하지 않고, 족보 검증 실패를 근거로 제사장직에서 탈락시키는 결정을 기록한다.

3.2. 문맥과 번역 전제에 대한 검토

느헤미야 7:64의 וַיִּגָּאֲלוּ מִן־הַכְּהֻנָּה에 대해 『개역개정』은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로, 『새한글』은 "그래서 깨끗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져서 제사장 일을 맡을 수 없었다."로 번역한다. 이는 동일 구절을 '제의적 상태'와 '법정적 판정'이라는 서로 다른 범주에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번역의 괴리는 본문이 실제로 지향하는 의미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해석적 과제를 던져준다. 느헤미야 7:64와 에스라 2:62의 문맥에서 문제의 핵심은 음식 규례나 부정 접촉이 아니라 족보(יָחַשׂ) 문서(כְּתָב)에 이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며, 그 결과는 제사장직 자격의 박탈이다. 따라서 여기서 גָּאַל은 제의적 오염 상태를 기술하는 표현이라기보다 언약 공동체 내에서의 공식적 배제와 지위 상실을 가리키는 법정적 언어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은 גָּאַל을 "defile"로 규정하는 사전적 분류가 해당 문맥의 의미 기능을 충분히 설명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법정적 해석 가능성에 대해, 포로 후기 공동체의 정결 담화를 연구

12) 본 절의 히브리어 본문 배열 및 자동 모음 첨가 초안 작성 과정에서 Dicta's Nakdan (2024)을 제한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모든 모음과 강세 부호는 BHS 및 BHQ 본문과 대조하여 저자가 직접 검증·수정하였다.

한 해링턴(H. K. Harrington)은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그녀는 느헤미야 13:29 등과 연결하여 제사장들의 통혼이 레위기적 성결 법전을 위반한 행위이며 그 결과 제사장들의 제의적 상태가 실제로 부정하게(טָמֵא) 변화되었다고 본다.[13] 즉 제사장직 배제는 족보라는 행정적 결함 이전에 '통혼을 통한 오염'이라는 실체적 상태 변화에 근거한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느헤미야 7:64의 서술 방식은 이러한 해석과 일정한 긴장을 형성한다. 본문은 정결 상태 변화를 기술하는 일반 동사 טָמֵא 대신 גָּאַל을 사용하며, 직접적 배제의 근거 또한 통혼 행위 자체가 아니라 '족보 문서(כְּתָב)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제시된다. 이는 제의적 오염 상태 자체보다 공동체 질서 안에서의 자격 입증 실패가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실제로 해링턴 역시 족보를 입증하지 못한 제사장 후보들이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지위로 포함되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들은 제사장 직무에서는 배제되었고 성물 섭취 또한 금지되었다. 이러한 관찰은 통혼이 배경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본문이 전면화하는 의미 층위가 제의적 상태 변화라기보다 사회–법정적 자격 판정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גָּאַל 어근의 의미 작동을 '지위 상실'이라는 방향성 안에서 검토하려는 본 연구의 문제 제기는 본문 문맥과 일정한 정합성을 가진다.

3.3. 기존 해석에 대한 비판

그럼에도 다수의 사전과 주석 전통은 이 본문에서의 גָּאַל을 여전히 제의적 오염의 범주에 위치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윌리엄슨(H. G. M. Williamson)과 블렌킨소프(J. Blenkinsopp) 역시 사건을 제사장직 박탈로 해석하면서도, 동사의 의미 범주는 사전적 분류에 따라 "defile"로 유지한다.[14] 이로 인해 제의적 상태 기술과 행정–법정적 지위 판정이라는 상이한 개념이 하나의 어휘 항목 안에 병치되며, 의미 범주가 설명 없이 혼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느헤미야 7:64와 에스라 2:62의 용례는, גָּאַל이 제의적 상태 변화를 기술하는 동사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소속과 직분 자격을 판정하는 관계적·법정적 언어로 기능함을 분명히 보여 준다. 따라서 이들 본문은 다니엘 1:8 해석을 보조하는 부차적 증거가 아니라, 기존 사전적 분류 체계

13) H. K. Harrington, "*The Books of Ezra and Nehemiah*", NICOT (Grand Rapids: Eerdmans, 2022), 132–33, 468.

14) H. G. M. Williamson, "Ezra and Nehemiah", D. A. Carson, et al., eds., *New Bible Commentary: 21st Century Edition*, 4th ed. (Leicester;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4), 436-437; J. Blenkinsopp, *Ezra–Nehemiah*, 274-286.

가 문맥 기반 의미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결정적 반례로 이해되어야 한다.

4. גָּאַל의 의미장 재구성: ‘더럽힘’에서 ‘언약적 지위 상실’로

4.1. גָּאַל I의 핵심 의미: 구속은 ‘지위 회복’이다

히브리어 גָּאַל I은 전통적으로 “구속하다”, “기업을 무르다”로 번역됐으나, 그 의미는 금전적 환원이나 친족 간 보상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고엘 제도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상실된 재산 자체보다, 그 회복을 통해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소속과 지위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행위이다.[15] 레위기 25장과 룻기에 나타난 고엘의 역할은, גָּאַל이 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기술적 제도가 아니라 공동체 질서의 붕괴를 복구하는 관계적·법적 장치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기업의 회복, 자유의 회복, 가족 연속성의 보존은 모두 공동체 내에서 상실된 지위(status)를 회복하는 하나의 목적에 수렴한다. 따라서 גָּאַל I은 ‘구속’을 추상적 은혜 개념이나 물질적 보상의 범주로 환원하기보다,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적 지위 회복을 지시하는 동사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는 느헤미야 7:64에 나타나는 גָּאַל의 ‘지위 상실’ 용례와 의미론적 대칭을 이루며, גָּאַל 어근 전체가 하나의 통합된 의미장 안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예비적으로 보여 준다.

4.2. 느헤미야 7:64의 의미론적 대칭 구조

앞서 살펴본 느헤미야 7:64의 וַיִּגֹּאֲלוּ מִן־הַכְּהֻנָּה는, 룻기와 이사야서에서 확인되는 회복 방향의 גָּאַל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기능한다. 고엘이 기업과 언약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동사라면, 여기에서 גָּאַל은 제사장직이라는 언약적 지위를 상실하게 만드는 동사로 작동한다. 이 두 용례는 서로 무관한 동음이의어가 아니라, 동일한 의미장 안에서 회복과 상실이라는 의미론적 대칭 구조를 형성한다.

15) R. Hubbard, *The Book of Ruth*,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88), 47-66, 185-189.

<표 2> גָּאַל 어근의 의미론적 대칭 구조

회복 방향의 גָּאַל	상실 방향의 גָּאַל
기업 회복 · 소속 회복	제사장직·지위 상실
언약 공동체로의 편입	언약 공동체 핵심 직분에서 탈락
룻기	느 7:64; 스 2:62

이 대칭 구조는 גָּאַל 어근을 "구속하다 / 더럽히다"라는 전혀 다른 의미 범주로 분리하는 사전적 분류보다, 하나의 의미장 안에서 언약적 지위의 회복과 상실을 가리키는 기능적 반대항으로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의미론적 틀 안에서 볼 때, 다니엘 1:8의 גָּאַל 역시 제의적 오염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적 지위를 선제적으로 보존하려는 행위로 재해석될 수 있다.

4.3. 말라기 1:7, 12: גָּאַל의 지위 판정적 용법

본 절은 말라기 1:7, 12의 גָּאַל이 제의적 오염(טָמֵא)을 기술하는 상태 동사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관계적·법정적 결과(지위 전락)를 판정하는 언어로 기능함을 논증한다. 이는 느헤미야 7:64의 공식적 직분 배제 용례를 법정적 원형으로 삼아 확인된다.

본 논증은 גָּאַל이 언제나 동일한 의미로만 쓰인다는 보편 명제를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말라기 1장과 느헤미야 7장이라는 핵심 문맥군에서 גָּאַל이 טָמֵא 계열처럼 제의적 상태를 직접 기술하기보다, 제의적 결함이 초래한 언약적 지위의 붕괴라는 결과층을 강조함을 보이려 한다.

4.3.1. 말라기 1:7 — 경멸(בזה)과 גָּאַל의 인과 구조

말라기 1:7에서 제사장들은 "가알된 떡(לֶחֶם מְגֹאָל)"을 바치면서도 책임을 부인한다. 그러나 본문은 그 원인을 "여호와의 상은 멸시받아도 된다(שֻׁלְחָן יְהוָה נִבְזֶה)"라는 태도에서 찾는다. 이러한 '경멸(בזה)'과 '가알(גָּאַל)'의 인과적 배열은, גָּאַל이 단순히 제물의 물리적 상태를 기술하는 표현이라기보다 제사장들의 반복적 경시 행위가 초래한 제의적 가치와 자격의 훼손을 판정하는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힐(A. E. Hill) 역시 여기서 '더러운(גָּאַל)'의 의미를 예배를 위한 제물이나 사람이 종교적 관점에서 "맞지 않게 되거나 자격 없게 되는(disqualified)" 상태로 이해한다.[16] 이러한 해석은 גָּאַל 어근이 단순한 상태 묘사에 머물지 않고, 일정한 규범적 평가와 자격

판정의 함의를 내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4.3.2. 말라기 1:12 — 훼손(חלל)과 גָּאַל의 귀결성

말라기 1:12는 제사장들의 행위와 태도를 "더러워졌고(מְחֻלָּלִים)"로 규정하고, 그 직접적인 귀결로 "주님의 이름은 가알되었다(מְגֹאָל)"고 선언한다. 여기서 '더럽힘'을 뜻하는 חָלַל은 거룩해야 할 여호와의 이름과 성물을 속된 것으로 만드는 능동적 모독 행위를 가리킨다.

제이콥스(M. R. Jacobs)는 이 문맥에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알'되었다고 말하는 것(בְּאָמְרְכֶם)이 단순한 언어적 표현을 넘어, 그들의 불성실한 사역과 여호와의 위대함을 경시하는 내면적 태도가 실제 제의 행위로 드러난 결과임을 지적한다.[17] 이러한 맥락에서 גָּאַל은 훼손 행위의 결과 상태를 지시하는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제단과 상이 물리적으로 오염되었다기보다, 제사장들의 반복적 경시 행위로 인해 그 거룩성과 언약적 위상이 훼손된 상태를 기술하는 것이다. 제이콥스가 분석하듯이, 1:12의 גָּאַל은 1:6의 '멸시(בָּזָה)' 및 1:7의 גָּאַל과 상호 조응하며, 제물의 질 이전에 제사장들의 태도가 성전 기구의 신학적 가치를 약화시키는 과정을 드러낸다.

따라서 여기서 גָּאַל은 단순한 물리적 오염을 묘사하기보다, 거룩한 것의 가치와 지위가 훼손된 상태를 선언하는 귀결적 표현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

4.3.3. 느헤미야 7:64 — 직분 배제의 법정적 원형

느헤미야 7:64는 גָּאַל의 법정적 용례를 가장 명시적으로 보여 준다.

> 느헤미야 7:64
>
> וַיִּגֹּאֲלוּ מִן־הַכְּהֻנָּה
>
> 그들이 제사장직에서 가알되었다.(필자 번역)

느헤미야 7:64는 גָּאַל의 의미 작동이 제도적·공동체적 맥락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족보(명부)에서 이름을 찾지 못한 이들이 "제사장직에서 가알되었다(וַיִּגֹּאֲלוּ מִן־הַכְּהֻנָּה)"고 기술되는 것은,

---

16) 앤드류 E. 힐, 『학개·스가랴·말라기』, 유창걸 역, 틴데일 구약주석 28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407. 힐은 여기서 גָּאַל이 모세 율법 위반의 결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부적합성'과 '자격 상실'을 선언하는 용어로 기능한다고 설명한다.

17) M. R. Jacobs, *The Books of Haggai and Malachi*, NICOT (Grand Rapids: Eerdmans, 2017), 203-204. 그는 제사장들이 "상은 더러워졌다"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행위와 신념의 일치를 보여 주는 증거이며, 이것이 곧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profane)하는 실체적 근거가 된다고 분석한다.

이 동사가 단순한 제의적 오염 상태를 넘어 공동체 내 공식적 직분과 관련된 배제를 지시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전치사 מִן(~로부터)의 사용은 גָּאַל이 특정 소속 범주로부터의 분리를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경우 גָּאַל은 제사장직이라는 제도적 지위로부터의 배제, 곧 자격 상실(disqualification)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 블렌킨소프는 이러한 명부 작성이 포로 귀환 공동체(גּוֹלָה)를 하나의 회중(קָהָל)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이 공동체에 '소속'하거나 혹은 '배제'되는 기준이 형성되었다고 분석한다.[18]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느헤미야 7:64의 גָּאַל은 공동체적 지위 판정과 연관된 용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맥락은 말라기에서 확인되는 가치·지위 훼손의 담화와 접점을 형성하며, 다니엘 1:8의 정체성 문제를 '지위의 유지와 상실'이라는 범주 안에서 재검토할 여지를 제공한다.

4.3.4. 칠십인역의 어휘 분화

칠십인역은 히브리어 גָּאַל을 단일한 제의적 오염 개념으로 번역하지 않는다. 말라기에서는 제사장들의 윤리적 모독을 고발하기 위해 제의적·평가적 어휘(ἀλισγέω, βεβηλόω)를 사용한다. 말라기 1:7, 12의 ἀλισγέω는 제물의 의례적 부적합성을, βεβηλόω는 거룩한 것을 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사장들의 의도적 가치 전도를 고발하는 표현이다.[19] 이러한 번역 선택은 해당 본문이 제의 대상물의 상태와 그 평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반영한다. 한편,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는 족보 불명에 따른 제사장직 자격의 박탈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번역 전략이 채택된다. 여기서 LXX는 ἀγχιστεύω를 사용하여 제사장직으로부터의 배제를 표현한다.[20] 특히 본래 "고엘의 권리를 행사하다"를 의미하는 이 동사가 수동태(ἠγχιστεύθησαν)로 사용되어 "제사장직에서 배제되었다"는 법정적 판정을 나타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Lexham Analytical Lexicon*은 이 용례를 명시적으로 "disqualified (from a

18) J. Blenkinsopp, *Ezra-Nehemiah*, 281-282. 그는 느헤미야 7장의 명부 배치가 단순한 인구 조사를 넘어, 신앙 고백과 도덕적 수행 능력에 기초하여 공동체의 구성원을 식별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임을 강조한다. 그는 특히 이 명부가 공동체에 대한 '소속'과 '배제'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음을 분석한다.

19) H. B. Swete, *The Old Testament in Gre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9), Mal 1:7, 12-13; M. R. Jacobs, *The Books of Haggai and Malachi*, NICOT (Grand Rapids: Eerdmans, 2017), 112-115.

20) J. Lust, E. Eynikel, and K. Hauspie,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rev.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3), s.v. ἀγχιστεύω; E. Hatch and H. A. Redpath, *A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Oxford: Clarendon Press, 1897), s.v. ἀγχιστεύω.

privilege or status)"로 정의한다.[21] 이는 에스라 2:62와 느헤미야 7:64의 수동태 용례가 제의적 오염 상태의 기술이 아니라 자격 박탈이라는 판정 행위를 지시함을 보여 준다. 물론 말라기 1:7, 12와 다니엘 1:8의 LXX 번역자들이 해당 구절의 גָּאַל을 ἀλισγέω와 같은 제의적 어휘로 옮긴 사실은, 고대 번역 전통 안에 이 어근을 제의적 오염 담화로 이해하는 경향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휘적 분화는 גָּאַל의 의미 기능이 단일한 상태 개념으로 고정되지 않았음을 오히려 보여 준다. 말라기와 다니엘의 번역어가 제의 대상물이나 행위 결과의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 전략을 택한 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번역어는 행위 주체의 공동체적 자격과 지위 판정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에스라-느헤미야에서 확인되는 수동태 용례는 גָּאַל 어근이 후기 성서 히브리어 문맥에서 단순한 제의적 상태 기술을 넘어, 공동체 소속과 직분의 유지 여부를 판정하는 관계적·법정적 술어로 기능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언어학적 증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니엘 1:8의 יִתְגָּאַל 역시 LXX의 제의적 번역 선택에만 근거하여 이해되기보다, 에스라-느헤미야에서 확인되는 법정적 의미 층위와의 상관성 속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4.3.5. 소결

본 절은 말라기 1:7, 12와 느헤미야 7:64의 성경 본문 속 사건의 원인과 결과의 대조를 통해 특정 문맥군에서 גָּאַל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직분·소속·책임의 지위가 붕괴되었음을 판정하는 법정적 언어로 기능함을 입증하였다. 말라기는 지위 붕괴의 원인을, 느헤미야는 그 제도적 귀결을 각각 제시함으로써, גָּאַל이 언약 질서의 붕괴를 고발하는 언약 소송의 핵심 어휘임을 드러낸다.

4.4. 통합 정의 제안: גָּאַל의 의미론적 공식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느헤미야 7:64, 에스라 2:62, 말라기 1:7, 12에 사용된 גָּאַל 어근은 전통 사전들이 제시하듯 상호 무관한 동음이의어로 분리하여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용례들은 모두 포로 후기 언약 공동체의 자기 이해 속에서, 언약적 지위(covenantal standing)의 회복과 상실이라는 대칭적 구조 안에서 일관되게 기능한다.

---

21) *Lexham Analytical Lexicon of the Septuagint* (Bellingham: Lexham Press, 2012), s.v. ἀγχιστεύω: "to be disqualified from a privilege or status." 이 정의는 스 2:62와 느 7:64의 수동태 용례가 제의적 오염이 아니라 법정적 자격 박탈을 지시함을 사전학적으로 확증한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에서는 גָּאַל 어근이 계보 불명으로 인한 제사장직 박탈이라는 지위 상실의 판정과 그 제도적 귀결을 서술하고, 말라기에서는 제사장들의 반복적 직무 훼손이 여호와의 이름과 제단을 "גֹּאַל되게 함"으로써 언약적 지위 붕괴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고발된다. 이 두 문맥군은 גָּאַל 어근이 제의적 상태 자체를 기술하기보다, 언약 공동체 내부에서 소속·직분·책임이 유지되거나 붕괴되는 법정적 변동을 표지하는 어휘로 기능함을 보여 준다.

이를 의미론적으로 정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Semantic Formula of גָּאַל in Late Biblical Hebrew

גָּאַל = Δ(Covenantal Standing)[22)]

본 연구는 גָּאַל 어근의 의미 구조를 "언약 공동체 내 지위의 전이(status transition within the covenantal community)"라는 범주로 정식화한다. 이는 גָּאַל이 단순한 제의적 상태 변화를 기술하는 동사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자격과 소속이 유지되거나 상실되는 관계적 변동을 지시하는 의미 층위를 포함함을 뜻한다. 여기서 "Δ"는 단순한 상태 변화(change of condition)를 의미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이를 하나의 어근이 상반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벡터적 다의성(vectorial polysemy)"의 범주로 이해한다. 즉, גָּאַל의 핵심 의미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지위 확정'이라는 관계적 축을 중심으로 작동하며, 그 방향이 공동체 내부를 향할 때는 '회복(restoration)'으로, 공동체 외부를 향할 때는 '박탈(disqualification)'로 나타난다. 이러한 의미 구조는 상호 무관한 두 동음이의어의 병존이라기보다, 동일한 관계적 의미장이 상반된 방향으로 실현되는 대칭적 전개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의미장은 두 방향성을 갖는다.

순방향(+): 회복(Restoration)
상실된 기업·신분·친족 관계를 회복하여 언약 공동체 안으로 재편입시키는 작용 (레 25장; 룻 4장; 사 52장)

역방향(−): 상실/배제(Forfeiture)
언약 공동체 내에서의 직분·자격·소속이 붕괴되거나 박탈되는 판정 (느 7:64; 스 2:62; 말 1:7, 12; 단 1:8)

22) 본 연구는 גָּאַל 어근의 의미 구조를 "언약 공동체 내 지위의 전이"라는 범주로 정식화한다. 이는 גָּאַל이 단순한 제의적 상태 변화를 기술하는 동사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자격과 소속의 이동 — 곧 회복 또는 상실 — 을 지시하는 의미 층위를 포함함을 뜻한다.

이러한 대칭 구조 안에서 볼 때, 흔히 גָּאַל II로 분리되어 온 “더럽히다”의 용례는 독립된 어근이라기보다, 언약적 지위가 붕괴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의미 벡터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타당하다. 다시 말해, גָּאַל 어근은 ‘제의적 오염’이라는 협소한 상태 개념을 넘어, 언약 공동체의 경계 안팎을 가르는 지위 판정 언어로 기능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통 사전들이 유지해 온 גָּאַל I / גָּאַל II의 동음이의어 분류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통합적 정의 아래 גָּאַל II의 의미를 재정식화할 것을 제안한다.

> גָּאַל (II)
> to undergo a decisive shift in covenantal standing
> 곧,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소속·지위·직분이 회복되거나, 혹은 상실·배제되는 상태에 들어가다(또는 그렇게 판정되다).

이 정의는 גָּאַל 어근을 정결/부정의 제의적 범주에 고정하지 않고, 포로 후기 문헌들이 공유하는 공동체적 위기의식 — 곧 언약적 정체성은 유지될 수도, 상실될 수도 있다는 인식 — 을 가장 경제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의미론적 재구성은 다니엘 1:8의 יִתְגָּאַל을 제의 규범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언약 공동체의 지위를 보존하거나 상실하는 방향성의 문제로 읽을 수 있는 해석학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러한 의미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גָּאַל 어근의 통합적 의미장

구 분	회복(구속)	상실/배제
방향성	언약 공동체 안으로의 복귀	언약 공동체 밖으로의 이탈
사회적 결과	기업·신분·친족 질서의 회복	직분·족보·소속의 박탈
신학적 함의	고엘의 회복 행위	언약 파기의 수치와 배제
대표 본문	레 25; 룻 4; 사 52	느 7:64; 말 1:7, 12; 단 1:8(필자 번역)

5. 다니엘 1:8에의 적용

5.1. 느헤미야 7:64 패턴과 언약적 소속

3장에서 분석하고 4.2에서 의미론적으로 재구성한 느헤미야 7:64의

וַיִּנָּאֵלוּ מִן־הַכְּהֻנָּה는 언약 공동체의 핵심 직분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배제되는 법정적 판정을 의미한다. 이 판정은 개인 오염 상태의 기술이 아니라, 소속 범주가 변경되었음을 선언하는 언약적 처분이다. 이러한 법정적 지위 상실 패턴을 다니엘 1:8에 적용하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바벨론 왕궁 질서에 대한 공식적 소속 승인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곧 제국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제국이 제공하는 보호와 은총 체계 안으로 자신을 위치시키는 정체성 선택이며, 포로기 유대인에게는 언약 공동체의 경계를 잠식하는 소속화의 상징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다니엘의 결단은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개인적 경건 선언이 아니라, 느헤미야 7:64에서 나타난 지위 상실 판정 구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행위, 곧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한 고엘적 자기 위치 규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표 4> 다니엘 1:8의 두 가지 해석

핵심 요소	관점 A: 음식법	관점 B: 고엘 정체성
גָּאַל 의미	제의적 오염	언약적 지위 상실
동기	레 11장 준수	하나님 백성 정체성
왕의 진미	부정한 음식	바벨론 소속
신약 관계	재해석(막 7:19)	연속·완성(고전 7:23)

5.1.1. 고대 근동에서의 '식탁'과 소속 표지

이 절은 다니엘 1:8의 '왕의 음식'이 단순한 음식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적 소속을 둘러싼 정체성 선택으로 읽혀야 함을 고대 근동의 사회사적 맥락에서 해명한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식탁 교제는 호의나 환대를 넘어, 보호 관계와 충성 체계 안으로의 편입을 상징하는 장치로 기능하였다. 식탁을 함께하는 행위는 특정 권력 질서의 은총과 보호를 수용한다는 공적 표지였으며, 왕궁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제국이 부여하는 정체성 질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행위로 이해되었다.[23] 다니엘 1장은 바벨론 제국이 포로로 잡아온 귀족 청년들을 자국 질서로 흡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속화 장치들을 서사적으로 배열한다. 이름 변경(1:7), 궁정 교육 편입(1:4), 왕의 음식 제공(1:5)은 모두 유다 언약 공동체에서 제국 질서로의 소속 이전을 목표로 하는 구조적 시도이다. 이러한 문맥에서 다니엘의 음식 거부는 음식 성분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방향을 둘러싼 결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3) J. J. Collins, *Daniel*, 137-145.

따라서 다니엘 1:8의 גָּאַל은 제의적 오염을 피하려는 소극적 금욕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소속과 지위를 보존하려는 적극적 선택을 서술하는 동사로 기능한다. 이는 느헤미야 7:64에 나타난 지위 상실의 판정 구조와 의미론적으로 대칭을 이루며, 다니엘의 결단을 고엘적 정체성의 실천으로 위치시킨다.

5.2. 제의적 오염 해석의 한계

이와 같은 언약적 소속 구조를 고려할 때, 다니엘 1:8을 제의적 오염의 문제로 환원하는 기존 해석은 여러 측면에서 설득력을 상실한다. 첫째, 본문은 음식이 어떤 율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며, 포로 상황에서 정결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도 서술하지 않는다. 둘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후에도 왕궁 교육을 받고 제국의 관료로 편입된다는 사실은, 이들의 문제의식이 음식 규례 준수에 머물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셋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환관 신분'으로 왕궁 봉사에 투입되었다는 설정은 이들이 이미 성전 제의 체계와 구조적으로 단절되었음을 전제한다.[24]

또한 히브리 성경에서 제의적 부정 상태를 직접 기술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טָמֵא 계열의 어휘가 표준적으로 사용된다. 레위기 11-15장은 음식 규례, 시체 접촉, 출산, 피부병, 유출 등으로 인한 제의적 오염을 반복적으로 טָמֵא로 규정하며, 이 어근은 일시적 상태 변화(state change)를 기술하는 핵심 동사로 기능한다. 레빈(B. A. Levine)이 지적하듯, 레위기 11장의 핵심 어휘는 טָמֵא이며, 이는 접촉과 상태 변화라는 물리적·제의적 범주 안에서 작동한다.[25] 이러한 제의적 부정은 제사나 씻음과 같은 정화 절차를 통해 가역적으로(reversibly) 해소될 수 있는 상태를 전제한다. 더욱이 다니엘서 자체는 제의 언어를 정확히 인지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저작임이

---

24) 단 1:3에서 이들이 '환관장'(רַב־סָרִיסִים)의 관할 아래 교육받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일부 해석 전통은 이를 실제 환관 신분과 연결하여 이해하기도 한다. 예컨대 Josephus, *Ant.* 10.186와 일부 랍비 전승은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을 궁정 환관 집단과 관련된 인물로 이해한다. 물론 본문은 이들이 실제로 거세되었는지를 명시하지 않으며, 히브리어 סָרִיס 역시 반드시 거세된 환관을 의미하지 않고 왕실 관리 전체를 지칭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전승은 이들이 이미 성전 제의 질서와 구조적으로 분리된 궁정 엘리트 집단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은 다니엘 1:8의 결단을 단순한 제의적 정결 규례의 문제로 환원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황적 맥락을 제공한다.

25) B. A. Levine, *Leviticu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63-72, 특히 "The key word in chapter 11 is tame'" 및 "The Conductivity of Impurity"; *HALOT*, s.v. טמא; *BDB*, s.v. טמא. 히브리 성경에서 음식 규례, 시체 접촉, 출산, 피부병, 유출 등으로 인한 제의적 오염을 기술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동사는 טָמֵא이다(레 11-15장).

분명하다. 다니엘 1:4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흠이 없는 자(אֲשֶׁר אֵין־בָּהֶם כָּל־מוּם)”로 묘사하는데, 이는 레위기 전통에서 제의적 적합성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전형적인 언어이다. 이는 본문 저자가 제의 어휘에 무지했기 때문에 טָמֵא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그럼에도 다니엘 1:8은 제의적 부정을 나타내는 טָמֵא가 아니라 גָּאַל 어근을 선택한다. 이 선택은 음식 성분 자체의 규정 위반 여부보다, 그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언약적 지위(covenantal standing)의 변화 — 특히 그 상실 가능성 — 에 초점을 두는 읽기를 요구한다. 다시 말해, 여기서 문제는 “일시적 제의 상태의 오염”이 아니라, 되돌리기 어려운 지위 판정(decisive status adjudication)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טָמֵא와 גָּאַל의 기능 대비

구 분	טָמֵא	גָּאַל
의미 층위	제의적/물리적 오염	언약적/공동체적 지위 변화
성 격	일시적·가역적 상태	결정적·판정적 변동
회복 방식	씻음·제사 등 의례적 정화	지위 회복 없이는 해소 불가
초점	접촉한 객체(음식·시체 등)	행위 주체의 소속·자격
포로 후기 문맥	제의 체계 전제	공동체 경계 설정

여기서 주목할 점은, 포로기 이후 문헌에서 גָּאַל 어근이 작동하는 문맥의 중심이 제의적 상태(ritual condition)가 아니라 사회–법정적 판정(socio-forensic adjudication)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통 사전들이 גָּאַל II를 ‘제의적 오염’ 범주에 고정해 온 것은 레위기적 정결 개념을 의미 해석의 출발점으로 삼은 결과이나, 포로기 이후 공동체 문헌에서는 이러한 제의적 범주가 더 이상 의미 작동의 중심을 이루지 않는다. 특히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에서 גָּאַל 어근은 신체적 상태 변화나 제의적 접촉으로 인한 오염을 기술하지 않으며, 공동체 기록과 제도 안에서의 자격 판정을 지시하는 용어로 기능한다. 느헤미야 7:64의 수동형(Pual) וַיְגֹאֲלוּ מִן־הַכְּהֻנָּה는 제의적 부정 상태에 ‘빠졌다’는 기술이 아니라, 족보 부재로 인해 제사장직에서 공식적으로 배제되었다는 법적 선고를 서술한다. 즉, 문제는 정결 여부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가 승인하는 지위의 상실이다. 이러한 언어 환경 속에서 다니엘 1:8의 יִתְגָּאַל은 제국 동화가 언약 공동체 내 지위 상실로 귀결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의도적 어휘 선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왕의 음식은 바벨론 통치 질서에 대한 전인격적 귀속을 상징하는 소속화 장치였으

며,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제국 질서 편입의 입구를 차단하는 언약적 자기 위치 규정(self-positioning)이었다. 따라서 다니엘의 결단은 개인적 경건 실천이 아니라, 포로 상황 속에서 언약적 정체성이 제국 질서에 의해 결정적으로 붕괴되는 방향(−Δ Covenantal Standing)으로 이동하는 것을 거부한 신학적·정치적 저항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다니엘 1:8을 제의적 오염의 문제로만 해석하는 접근은, 본문의 어휘 선택이 지닌 의미론적 의도와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의미 전이를 동시에 간과할 위험이 있다.

5.3. 다니엘 1장과 9장의 내적 연계: 출애굽기 34:6–7의 서사적 이중 구조

다니엘서 1장의 왕의 음식 거부는 단순한 제의적 정결 규례의 문제가 아니라 출애굽기 34:6-7의 긍휼-보응 구조 안에서 형성된 언약적 정체성 선언이며, 이 정체성은 다니엘 9장의 공동체적 중보기도에서 서사적으로 완성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니엘서 1장과 9장은 개별적인 경건 서사가 아니라 동일한 언약 신학을 공유하는 서사적 이중 구조를 형성한다.

이 연계성을 확인하는 첫 번째 단서는 다니엘 1:9의 표현에 있다. 다니엘이 감독관에게 받은 "은혜와 긍휼(לְחֶסֶד וּלְרַחֲמִים)"은 하우스가 지적하듯 출애굽기 34:6-7의 언약적 자기 선언을 반영하는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26] 이는 다니엘서가 처음부터 언약 신학의 틀 안에서 서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27] 나아가 다니엘 1:2는 포로 사건을 "주께서 … 그의 손에 넘기시매(וַיִּתֵּן אֲדֹנָי)"라는 표현으로 기술함으로써 제국의 군사적 승리를 하나님의 주권적 징계 행위로 해석한다.[28] 이러한 관점은 다니엘 9장에서 포로 상태를 "저주가 우리에게 쏟아졌다(9:11)"고 고백하는 언약 신학과 동일한 해석 지평 위에 놓여 있다.

이러한 신학적 연속성 속에서 다니엘 9장의 중보 기도는 새로운 출발점이 아니라 이미 1장에서 서사적으로 예비된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니엘은 9장에서 "우리(9:5, 7, 8, 11, 15)"라는 일인칭 복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한다. 이는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공동체를 대표하는 중보자의 자기 위치 설정이다. 이러한 중보적

---

26) P. R. House, *Daniel: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23 (London: InterVarsity Press, 2018), 53–54.

27) J. J. Collins, *Daniel*, 349–358.; T. Longman III, *How to Read Daniel*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20), 110–112.

28) J. E. Goldingay, 채천석 역, 『다니엘』, WBC 성경주석시리즈 30 (서울: 솔로몬, 2008), 85-86.

동일화는 이미 1장에서 암시된다. 1장에서 다니엘은 성전 기물 탈취(1:2), 이름 변경(1:7), 궁정 교육 편입(1:4)으로 이루어진 제국의 동화 장치 속에서 자신을 바벨론 체제에 귀속된 존재로 규정하기보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이해한다. 이러한 정체성은 9장에서 공동체 전체를 대신하여 죄를 고백하고 회복을 간구하는 중보자의 역할로 이어진다. 여기서 다니엘이 사수하려 했던 언약 공동체는 과거 유다의 지리적 영토로 규정되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넘겨주심(1:2)'이라는 징계 사건을 통과하면서도 궁극적 회복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남은 자 공동체이다. 따라서 다니엘서는 1장에서 언약적 정체성의 확립을 제시하고, 9장에서 그 정체성에 기초한 중보 수행을 제시하는 서사적 대응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다니엘 1:8의 יִתְגָּאַל 해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전통적으로 이 동사는 '더럽혀지다(defile)'로 번역되며 레위기적 제의 오염(טמא)의 범주 안에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어근 גָּאַל은 본래 '구속하다, 되찾다'라는 법적·관계적 의미를 지닌 어근이며, 레위기적 정결 규정의 어휘와는 구별되는 범주에 속한다. 포로기 이후 문헌인 에스라 2:62와 느헤미야 7:64에서 이 어근은 족보가 확인되지 않아 제사장 직분에서 배제된 상태 — 곧 물리적 부정이 아니라 공동체적 지위의 법적 상실 — 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용례는 יִתְגָּאַל이 단순한 제의적 오염을 넘어 공동체적 자격이나 지위의 훼손을 지시하는 표현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어근의 의미 범주는 다니엘서의 서사 논리와도 정합성을 가진다. 다니엘서의 서사는 1장에서 성전 기명들이 바벨론으로 '넘겨지는' 사건으로 시작하여, 5장에서 벨사살의 연회에서 그 모독이 극적으로 드러나고, 9장에서 공동체의 죄 고백과 회복 기도로 이어진다. 이 세 본문은 언약 공동체의 지위 상실과 회복이라는 단일한 서사적 긴장을 형성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니엘 1:8의 יִתְגָּאַל은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행위를 바벨론 왕의 체제에 귀속되기를 거부하고 언약 공동체의 지위를 보존하려는 신학적 자기 규정 행위로 이해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자기 규정은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이 보여 주는 공동체적 동일화와 대리적 고난의 신학과도 상응한다. 다니엘은 제국의 중심에서 자신의 신분을 언약 안에 고정시킴으로써 공동체의 죄와 운명을 함께 짊어지는 대표적 존재로 서게 된다.

결론적으로 다니엘 1장과 9장을 관통하는 서사 구조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장의 결단은 출애굽기 34:6–7의 긍휼–보응 구조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의 언약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건이며, 9장의 기도는 그 정체성에 기초하여 공동체를 대신해 죄를 짊어지는 중보적 행위를 수행하는 사건

이다. 따라서 יִתְגָּאַל은 이 두 장을 연결하는 신학적 열쇠어로서, 언약적 지위 상실에 대한 저항과 그 지위 회복을 향한 간구를 동시에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5.4. 본문 재번역 제안

다니엘 1:8의 히브리어 본문은 다음과 같다.

וַיָּשֶׂם דָּנִיֵּאל עַל־לִבּוֹ אֲשֶׁר לֹא־יִתְגָּאַל בְּפַתְבַּג הַמֶּלֶךְ וּבְיֵין מִשְׁתָּיו

여기서 핵심 동사는 יִתְגָּאַל로, גָּאַל 어근의 Hithpael 미완료형이다. 이 형태는 상태 기술을 넘어, 주체가 스스로 특정한 지위 변화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의지적 태도를 나타낸다. 즉, 다니엘은 '더러워지는 상태' 자체를 두려워했다기보다, 그 행위가 자신을 특정한 언약적 지위로 이동시키는 방향성을 의식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5.4.1. 전통 번역의 한계

대다수 번역은 יִתְגָּאַל을 "defile himself" 또는 "make himself unclean"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טָמֵא 계열이 아닌 גָּאַל 어근의 선택을 설명하지 못한다.

둘째, 제의적 부정이라는 가역적 상태(state)를 전제함으로써, 본문이 강조하는 결정적 선택과 자기 위치 규정(self-positioning)의 성격을 약화시킨다.

셋째, 포로기 후기 문헌에서 확인되는 גָּאַל 어근의 사회–법정적 의미 전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의미장 재구성과 다니엘서 내부의 신학적 증거에 비추어 볼 때, 다니엘 1:8의 יִתְגָּאַל은 통상적인 번역처럼 "자기를 더럽히다"로 옮기기보다, 보다 확장된 의미를 반영하여 이해될 필요가 있다.[29]

5.4.2. 다니엘 1:8 재번역 제안

본 연구가 사용하는 "언약적 지위"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문자적 대등 번역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는 יִתְגָּאַל이 포로 후기 문헌군

29) 본 절의 재번역 초안 문장 구성 과정에서 OpenAI사의 ChatGPT (5, 2025. 8. 7.)를 문장 구조 정리 보조 도구로 제한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번역 내용은 히브리어 원문 및 주요 주석서에 근거하여 저자가 직접 검증·수정하였다.

에서 수행하는 의미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해석적·기능적 복원(functional reconstruction)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표현은 본문에 없는 신학 개념을 외삽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앞서 검토한 용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의미 층위를 명료화하기 위한 해설적 범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언어사적·의미론적 관찰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다니엘 1:8을 다음과 같이 재번역할 것을 제안한다.[30]

> 제안 1 (직역 중심):
>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인해 자신을 가알시키지 않기로 마음에 정하였다.
> Daniel resolved in his heart not to make himself ga'al through the king's food and the wine he drank.
>
> 제안 2 (의미 반영):
>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인해 자신의 언약적 지위를 상실하지 않기로 결단하였다.
> Daniel determined not to forfeit his covenantal standing through the king's food and wine.
>
> 제안 3 (신학적 명료화):
> 다니엘은 왕의 식탁 참여를 통해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자신의 소속과 지위가 훼손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 Daniel refused to allow his membership and standing within the covenant community to be compromised through participation at the king's table.

이러한 번역적 이해는 יִתְגָּאַל을 단순한 '제의적 오염'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지위 상실(forfeiture of covenantal standing)의 문제로 파악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에스라-느헤미야에서 확인되는 법정적 의미 층위를 고려할 때, 다니엘 1:8의 동사 역시 단순한 음식 규례 위반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적 소속과 관련된 의미를 함축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다니엘의 결단은 개인적 경건 실천이라기보다 제국 질서와 언약 정체성 사이에서의 신학

30) יִתְגָּאַל (단 1:8)은 레위기적 제의 오염을 기술하는 표준 어휘인 טָמֵא가 아니라, 포로기 이후 문헌에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지위 박탈을 지시하는 גָּאַל 어근의 Hithpael형이다. 느 7:64; 스 2:62; 말 1:7, 12에서 확인되듯, 이 어근은 물리적·제의적 상태 변화라기보다 사회–법정적 자격 판정을 지시한다. 따라서 "defile himself"라는 번역은 본문의 언어사적 의미 전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to forfeit (or risk forfeiting) covenantal standing"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더 타당하다.

적 선택으로 재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는 콜린스(J. J. Collins)가 제시한 "동화의 한계선(limit to assimilation)" 개념과도 일정 부분 상응한다.[31] 다니엘은 바벨론의 교육 체제와 이름 변경 등 외적 구조는 수용하면서도, 왕의 식탁 참여와 같이 상징적 귀속을 강화하는 요소는 제한함으로써 언약 정체성의 경계선을 설정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다니엘 1:8은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귀속과 충성의 방향을 묻는 본문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적 동화와 핵심적 거절의 구조는, 다니엘이 제국 관료로 봉직하면서도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신학적 설명 틀을 제공한다.

5.4.3. 번역 주석

본문은 동사의 목적어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그 결과를 제의적 부정이나 도덕적 타락과 같은 특정 범주로 제한하지 않고, 다니엘이 거부한 '방향성' 자체에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이러한 비규정성은 다니엘 1장의 서사 흐름 — 포로 이송, 이름 변경, 궁정 교육, 그리고 왕의 음식 제공 — 속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이 연쇄는 생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포로 청년들을 바벨론 제국의 정치적 종교적 질서 안으로 점진적으로 소속시키는 동화 장치로 기능한다. 이 맥락에서 왕의 음식은 제국 질서에 대한 전인격적 귀속을 상징하는 표지이며, 다니엘의 거부는 음식 성분 자체보다 그 소속 전환을 승인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데 초점이 있다.

이러한 읽기는 느헤미야 7:64와 말라기 1:7–12에서 확인되는 גָּאַל 어근의 의미장 — 곧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지위 상실과 훼손이라는 관계적·법적 차원 — 을 다니엘 1:8에 적용하는 문맥적·언어사적 재구성에 의해 뒷받침된다.

따라서 다니엘 1:8은 개인 경건의 모범으로 축소되어 읽히기보다, 바벨론 왕실의 식탁을 매개로 형성되는 정체성 전환의 위기 앞에서 언약 공동체의 지위를 보존하려는 결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6. 결론

6.1. 연구 요약

본 논문은 다니엘 1:8에 사용된 יִתְגָּאַל의 의미를 재검토함으로써, 이 동사가

31) J. J. Collins, *Daniel*, 142-143.

전통적으로 이해되어 온 '제의적 오염'의 범주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음을 논증하였다. 이를 위해 *BDB*와 *HALOT*이 제시한 גָּאַל I("구속하다") / גָּאַל II("더럽히다")의 이분법적 분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분류가 다니엘 1:8을 제의적 정결 담화에 구조적으로 고정시켜 왔음을 지적하였다.

이어 느헤미야 7:64와 에스라 2:62의 분석을 통해, גָּאַל 어근이 제의적 상태를 기술하는 표현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지위 상실, 곧 제사장직으로부터의 공식적 배제를 지시하는 법정적·관계적 판정어로 기능함을 밝혔다. 또한 말라기 1:7, 12는 이 어근이 제사장 직분 훼손이라는 지위 붕괴의 원인을 고발하는 언약 소송 담화의 핵심 어휘로 사용됨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의미론적 재구성은 다니엘 9장의 중보 기도와 결합될 때, 다니엘 1:8의 결단이 개인적 경건이나 음식 규례 준수를 넘어, 포로기 상황 속에서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과 소속을 선제적으로 보존하려는 자기 위치 규정 행위로 이해되어야 함을 확증한다.

6.2. 사전 분류에 대한 제안

본 연구는 포로 후기 문맥군(스 2:62; 느 7:64; 말 1:7, 12)에서 גָּאַל이 언약 공동체의 제도·담화 안에서 자격·직분·소속의 박탈/훼손을 판정하거나 그 귀결을 선언하는 의미 층위를 강하게 활성화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גָּאַל II("defile")를 독립 어근으로 고정하기보다, 포로 후기 문맥군의 실제 사용을 반영하여 '언약적 지위의 훼손/박탈'이라는 관계적·법정적 차원을 포함하도록 사전적 기술을 재기술(또는 재배치)할 가능성을 제안한다. 이는 기존 사전 체계를 전면 부정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포로 후기 문헌에서 문맥 기반 의미 이동을 더 정밀하게 반영하려는 의미론적 조정 제안이다.

6.3. 후속 연구 과제: 포로기 고엘 개념의 신학적 재배치

본 연구는 다니엘 1:8의 גָּאַל을 제국 질서 속에서 언약 공동체의 지위를 보존하려는 신학적 자기 위치 설정 행위로 재해석하였다. 이 해석은 포로기 이후 문헌에서 고엘 개념이 경험한 신학적 재배치를 전제로 하며, 그 정경적 함의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첫째, 포로기 이사야서에서 여호와가 반복적으로 "너의 구속자(גֹּאֲלֵךְ)"로 호명되는 현상(사 41:14; 43:1, 14; 54:5 등)은, 제도적 고엘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엘의 언약적 기능이 하나님 자신에게 귀속되는 신학적 전환

이 일어났음을 시사한다. 이는 토라에 나타난 친족 구속 제도와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동시에 검토할 과제를 제기한다.

둘째, 느헤미야 7:64의 제사장직 배제, 말라기 1장의 제사장 고발, 그리고 다니엘 1:8의 지위 보존 결단은 모두 언약 공동체의 경계와 소속을 둘러싼 담화 속에서 גָּאַל 의미장을 활용한다. 이들 본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법정적·관계적 지위 언어는, 포로기 이후 공동체가 제국 지배 환경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방어하고 재구성하는 데 גָּאַל 어근이 핵심 신학 언어로 기능했음을 보여 준다.

셋째, 이러한 구약의 고엘 신학은 신약의 그리스도 속량론으로 계승·변형된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ἀπολύτρωσις)을 언약 공동체로의 재편입과 결부시키는 방식(롬 3:24; 갈 3:13-14; 엡 1:7)은, 고엘 기능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재정의되는지를 탐구할 정경신학적 연결 고리를 제공한다.

이로써 본 연구는 גָּאַל 어근의 의미 재구성이 단순한 어휘 수정이 아니라,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이 제국의 한복판에서 언어를 통해 언약 공동체의 경계와 정체성을 유지해 간 방식에 대한 사회-수사학적·정경신학적 통찰로 확장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주제어>(Keywords)

다니엘 1:8, גָּאַל, 언약적 지위, 동음이의어 비판, 포로기 신학.

Daniel 1:8, gā’al, Covenantal Standing, Lexicography, *BDB*/*HALOT* Critique, Exilic Theology, Juridical Disqualification.

(투고 일자: 2026년 1월 16일, 심사 일자: 2026년 2월 27일, 게재 확정 일자: 2026년 4월 9일)

<참고문헌>(References)

골딩게이, J. E.,『다니엘』, 채천석 역, WBC 성경주석시리즈 30, 서울: 솔로몬, 2008.

힐, 앤드류 E.,『학개·스가랴·말라기』, 유창걸 역, 틴데일 구약주석 시리즈 28,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Blenkinsopp, J., *Ezra–Nehemiah*,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88.

Brown, F., Driver, S. R., and Briggs, C. A., *The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Oxford: Clarendon Press, 1977.

Collins, J. J., *Daniel: A Commentary on the Book of Daniel*,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Harrington, H. K., *The Books of Ezra and Nehemiah*, NICOT, Grand Rapids: Eerdmans, 2022.

Hatch, E. and Redpath, H. A., *A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and the Other Greek Versions of the Old Testament*, Oxford: Clarendon Press, 1897.

House, P. R., *Daniel: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Firth, D. G., ed.,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23. London: Inter-Varsity Press, 2018.

Hubbard Jr., R. L., *The Book of Ruth*.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88.

Hurvitz, A., *A Linguistic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estly Source and the Book of Ezekiel: A New Approach to an Old Problem*, Cahiers de la Revue Biblique 20, Paris: Gabalda, 1982.

Jacobs, M. R., *The Books of Haggai and Malachi*, NICOT, Grand Rapids: Eerdmans, 2017.

Klein, E. "גאל II", B. Sarel, ed., *A Comprehensive Etymological Dictionary of the Hebrew Language for Readers of English*, Jerusalem; Carta: University of Haifa, 1987.

Koehler, L. and Baumgartner, W.,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Richardson, M. E. J., trans., and ed., Study Edition, Leiden: Brill, 2001. (*HALOT*)

Levine, B. A., *Leviticu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Lexham Analytical Lexicon of the Septuagint, Bellingham: Lexham Press, 2012.

Longman III, T., *How to Read Daniel*,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20.

Lust, J., Eynikel, E., and Hauspie, K.,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2nd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3.

Milgrom, J., *Leviticus 23-27*, Anchor Bible 3B, New York: Doubleday, 2001.

Miller, S. R., *Daniel*, NAC 18,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4.

Montgomery, J. A.,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Daniel*, ICC,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27.

Motyer, J. A., *Isaiah: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20.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9.

Oswalt, J. N., *The Book of Isaiah, Chapters 40-66*,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8.

Saenz-Badillos, A., *A History of the Hebrew Language*, Elwolde, J., tr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Swete, H. B., *The Old Testament in Gre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9.

Williamson, H. G. M., "Ezra and Nehemiah", Carson, D. A., et al., eds., *New Bible Commentary: 21st Century Edition*, 4th ed., Leicester;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4.

Dicta's Nakdan (2024), [히브리어 자동 모음 첨가], https://nakdan.dicta.org.il/ (2026. 1. 16.).

OpenAI, ChatGPT (5, 2025. 8. 7.), [대형언어모델(LLM)], https://chatgpt.com/ (2026. 1. 16.).

<Abstract>

Reconsidering גָּאַל in Daniel 1:8:
A Semantic Critique of the Homonymic Division in *BDB* and *HALOT*[32]

Jeonghun Kim
(ACTS University)

This study offers a critical re-examination of the verb יִתְגָּאַל in Daniel 1:8, challenging the traditional consensus that has long reduced Daniel's resolve to a matter of "ritual defilement" or "cultic impurity." I argue that this interpretive trend is fundamentally preconditioned by the homonymic division found in standard biblical Hebrew lexicons, such as *BDB* and *HALOT*. These lexicons bifurcate the root gāʾal into two distinct entries: גָּאַל (I), meaning "to redeem," and גָּאַל (II), meaning "to defile." By treating these as etymologically unrelated homonyms, previous scholarship has reflexively confined the interpretation of Daniel 1:8 to the narrow categories of dietary law observance or private pietism. To challenge this lexical fragmentation, this research employs a synchronic and contextual analysis of post-exilic corpora, specifically focusing on Nehemiah 7:64, Ezra 2:62, and Malachi 1:7. In the genealogical records of Ezra and Nehemiah, those unable to prove their priestly lineage are described as being "gaʾal-ed" from the priesthood. This usage signifies a formal, juridical disqualification — an expulsion from a functional office — rather than a mere description of physical or ritual pollution. Similarly, the "gaʾal-ed" offerings in Malachi 1 denote a loss of covenantal standing regarding Yahweh's table, resulting from the failure of the priestly mediators. Based on these findings, I propose a semantic reconstruction that integrates the various usages of גָּאַל under the unified rubric of "Covenantal Standing." In this model, גָּאַל (I) represents the restoration of such standing (Redemption), while גָּאַל (II) denotes its forfeiture or disqualification (Defilement/Disqualification). Consequently, Daniel's refusal of the King's dainties in Daniel 1:8 is reinterpreted as a strategic act of theological self-positioning. By resisting the Babylonian mechanism of

32) 본 영문 초록의 문장 초안 구성 과정에서 OpenAI사의 ChatGPT (5, 2025. 8. 7.)를 문체 정리 및 문장 구조 보조 도구로 제한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최종 영문 표현은 저자가 직접 검토·수정하였다.

assimilation, Daniel seeks to preserve his eligibility as a representative intercessor for his people. When read alongside the canonical context of Daniel 9, his resolve emerges not as a mere exercise in dietary asceticism, but as a deliberate defense of his covenantal qualification. This study ultimately suggests that the lexicographical category of “to defile” must be redescribed in light of its post-exilic juridical-semantic weight, providing a more robust framework for understanding exilic identity and resistance.